

남산 늠비봉 5층 석탑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답사단원들. 늠비봉 석탑은 특이하게 자연 암석을 기단으로 삼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일명 황금불상이라고 불리는 포석곡 제5사지 마애여래좌상.



최민희 소장이 남산불적답사단원들에게 황금마애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적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답사단원들.

천년 경주 지킨 土城… 불국토로 들어가는 입구였네

남산에서 불국토 가는 길을 찾아서

산은 1년 내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일은 없다. 경주의 대표적인 명산인 남산도 마찬가지다. 봄과 여름의 문턱, 6월의 남산은 알록한 봄 옷을 벗고 푸르른 신록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산에 오를 수 있는 등산로는 약 70여 곳. 신라문화원 남산불적답사단은 이번 답사의 시작을 경주 산업도로 인근 '60 고개'로 오르는 등산로 입구를 택했다. 경주 토박이들이 지었을 법한 '60 고개'는 60살 이상의 어르신도 완만히 오를 수 있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산 · 도당산 토성은 원래 하나

원만한 고개와 산업 도로 사이에는 알으막한 두 산들이 존재한다. 이곳이 바로 남산 토성과 도당산 토성이다. 남산에는 이외에도 남산신성과 고허성 등 총 4개의 산성지가 존재한다. 이들 성곽들의 축성 연대는 경주 중심에 자리했던 월성과 이격 거리가 가까울수록 빠르며, 축조기법은 토성에서 석성으로 발전해 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산 토성과 도당산 토성은 경주 산업도로를 가운데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본래 남산 토성과 도당산 토성은 연결돼 있는 하나의 산성이었다. 실제 2000년 남산 종합정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남산토성과 도당산 토성의 단면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판축(版築, 판자를 양쪽에 대고 그 사이에 흙을 넣어서 단단하게 다져 담이나 성벽 등을 쌓는 일)을 했던 성벽 일부가 나타났다.

"남산 종합정비 기본 계획을 통해 총 5곳의 탐색갱에서 판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는 남산 토성과 도당산 토성이 따로 존재하는 두 개의 산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경주시가 도당산 토성과 남산 토성을 연결하는 생태 터널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생태 복원도 중요하지만 신라시대의 성벽 복원에 더 의미를 두고 조성해야 합니다."

굽이굽이 능선을 따라가니

남산토성의 굽이진 산길에 올랐다. 10여 분을 오르니 남산신성의 북문터가 나타난다. 석조로 축조된 남산신성의 대부분의 유구들은 세월에 의해 사라졌지만 일부 구간에는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성벽들이 존재한다. 신성의 입구에서 최 소장은 "이곳이 신라시대 남산을 오르는 입구"라며 "여기를 통해 사람도 달구지도 전령도 지나다녔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내부 최대 너비는 동서로 1.1km, 남북으로 1.4km이며, 내부 면적은 1,007,280㎡로 확인된다. 성 내부에는 창고, 문지, 망대 등 유구들의 터가 남아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창, 동창, 중창으로 대변되는 창고지다. 신성의 북문지를 지나 삼화령을 넘어 해목령으로 가는 평탄한 정상 인근에 창고지가 있다. 각 창고의 성격을 살펴 보면 중창은 곡식을 저장했던 창고이며, 좌창과 우창은 무기를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에는 이 같은 창고를 관리하던 부속 건물들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남산신성의 존재는 남산신성비가 발견되면서 확고해졌다. 현재까지 총 10기의 비문이 발견됐는데, 비에는 축성에 참여한 인물들의 관직명, 출신지, 축성거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남산신성비는 성곽 축조 당시의 담당 구역 및 경계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당시 지방행정제도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문무왕 때 대대적인 증축이 이뤄지고 난 후 왕성인 월성과 함께 도성 방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곽으로 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산과 도당산 토성은
연결됐을 가능성 높아
산업 개발 훼손은 아쉬움
능선 주위 석탑 · 마애불 산재
'남산=불국토' 새삼 일깨워
능비봉 5층 석탑 하늘 닿을 듯

오롯이 선 석탑은 신라인의 佛心

신성의 창고지와 게눈바위가 있는 해목령(蟹目嶺, 게눈 고개)를 지나면 현존 사찰인 부흥사가 나온다. 부흥사를 가로지르면 늠비봉에 오를 수 있는 능선길이 나온다. 능선을 따라오르면 곳곳에 구불텅하게 높이 뻗어있는 소나무 숲이 장관이다.

구슬땀을 흘리며 도착한 늠비봉의 넉넉한 봉우리 위에는 5층 석탑이 오롯이 서 있다. 그 모습을 보며 당시 웅장했을 천년 전 남산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석탑의 옆에 서니 외동평야부터 경주 시가지까지 옛 화려했던 서라벌이 한눈에 굽어보인다. 신라인들은 이곳에서 석탑을 세우고 신라가 불국토의 현현이 되길 기원했을 것이다.

늠비골 정상 5층 석탑은 흩어져 있던 석재들을 모아 2002년 2월 복원한 것으로 그 구조가 매우 특이하다. 하부기단을 생략해 자연 암반을 단층 기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조형미를 살펴보면 신라시대 석탑보다는 고려시대 석탑형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는 경주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양식의 구조라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남산 중간 이상의 석탑들은 대부분은 기단 하부를 암반으로 하는 양식이 많습니다. 남산 자체를 탑의 하부로 사용한 독특한 구조입니다. 늠비골 5층 석탑은 경상도 지역에서 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벗어나 백제계 석탑 양식을 수용한 것이여서 그 가치가 큽니다."

늠비봉 5층석탑을 친견했으면 꼭 봐야할 것이 황금마애불이다. 부흥사로 다시 내려와 조그만 오솔길로 내려가면 황금불상이라고 불리는 마애여래좌상이 있다. 이 마애불을 황금불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불상이 선각된 바위가 황토빛을 띄고 있어서다. 이곳에서는 늠비봉 5층석탑이 바로 보이고 남쪽으로 황금대 능선이 수려히 펼쳐진다.

"남산에 조형된 마애불과 불상들을 답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불상의 시선입니다. 대부분의 시선 위치는 산 정상을 향하거나 계곡 아래를 굽여봅니다. 황금 마애불의 경우에는 늠비봉을 향하고 있습니다."

황금마애불의 불신(佛身)은 그 형태가 선명히 남아 있지만, 얼굴은 박락이 심해 알아볼 수 없다. 누군가 훼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훼손은 불상의 영험함을 믿은 민초들이 가피를 받기 위한 것일 게다.

초여름 따가운 햇살을 맞으며 오른 남산. 신라인에게 남산은 부처님이 상주하신 곳이었다. 그런 이유로 남산을 기단으로 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했다. 천년의 세월이 지나 흩어진 석재만 존재해도 신라인들의 불심만은 오롯이 남산 안에 남았다.

경주=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7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신라인들의 불성 조성 방법을 찾아서
- 일시 : 7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조왕탱화 상세안내

1 정의 :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2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3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6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7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초안 (먹물 밑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호)



문양 (고대문양)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싣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 유 불 화 원 금어 조성철 합장